
한국융합인문학회 2017년 춘계학술대회
동아시아 근현대 인문학과 예술의 융합적 고찰

- ▶ 일시 : 2017년 4월 22일 (토), 14:00~17:30
- ▶ 장소 :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문과대학 225호
- ▶ 주최 : 한국융합인문학회

한국융합인문학회

Korean Association of Converging Humanities

한국융합인문학회 2017년 춘계학술대회

[세부일정]

- ▶ 일시 : 2017년 4월 22일 (토), 14:00~17:30
- ▶ 장소 : 고려대 인암캠퍼스 문과대학 225호

제1부 학술대회 | 동아시아 근현대 인문학과 예술의 융합적 고찰 [14:00-16:30]

시간	구분	내용
14:00-14:10	개회선언 및 축사	• 회장 : 소인호 (청주대)
14:10-14:40	주제발표 1	▶ C-school, 인문 예술의 창의융복합 교육 • 발표 : 소인호 (청주대) • 사회 : 박보영 (극동대) • 토론 : 양원모 (극동대)
14:40-14:50	휴 식	
14:50-15:20	주제발표 2	▶ 毛泽东文艺思想与中国现当代文学创作新气象 • 발표 : 李承熙 (极东大学) • 사회 : 박보영 (극동대) • 토론 : 송재두 (중원대)
15:20-15:30	휴 식	
15:30-16:30	종합토론 및 폐회선언	• 회장 : 소인호 (청주대)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16:40-17:30]

- 진행 : 박보영(연구윤리위원회 위원)
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정보센터 안내 및 앱(App) 소개
 2.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안내 및 관련자료 배포
 3.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목 차]

2017년 춘계학술대회 프로그램 안내

제1부 학술대회 | 동아시아 근현대 인문학과 예술의 융합적 고찰

▣ 주제발표 1

- C-school, 인문 예술의 창의융복합 교육 7
 - ▶ 발표 : 소인호 (청주대학교)
 - ▶ 토론 : 양윤모 (극동대학교)

▣ 주제발표 2

- 毛泽东文艺思想与中国现当代文学创作新气象27
 - ▶ 발표 : 李承熙 (极东大学)
 - ▶ 토론 : 송재두 (중원대학교)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 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정보센터 안내 및 앱(App) 소개 49
- 2.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안내 및 관련자료 배포 50
- 3.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51

제1부 학술대회

주제발표

동아시아 근현대 인문학과 예술의 융합적 고찰

[주제발표 01]

C-school, 인문 예술의 창의융복합 교육

/ 소인호(청주대학교)

[주제발표 02]

毛泽东文艺思想与中国现当代文学创作新气象

/ 李承熙(极东大学)

C-school, 인문 예술의 창의융복합 교육

소인호*

I. 서론

산업경제와 지식경제의 시대를 지나면서 사회 환경은 급속한 변화의 물결에 휩쓸리고 있다. 기술, 산업 중심 사회의 분명한 한계가 노정됨에 따라 문화와 인간 중심의 사고와 활동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콘텐츠 산업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인문, 예술 역량을 토대로 한 사회 제 분야의 창조적 융합이 확산되고 있다. 매력적인 스토리와 감성, 경험, 상상력 등 인간적인 요소가 반영된 콘텐츠가 미래산업을 선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창조성이야말로 정보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사회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창의 인재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미래 사회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은 혁신적 사고와 유연한 상황 대처 능력, 소통 능력이 될 것이다. 창조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통찰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델을 인문학적 기본 소양을 바탕으로 예술과 기술 역량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렇지만 우리의 대학 교육은 급변하는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역부족인 상황이다. 언어, 기술,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관련 교육체계는 미비하다. 그나마도 학문 단위별 기초교육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현장 수준의 전문교육은 물론, 콘텐츠 트렌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산학연계의 활성화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학 커리큘럼의 차별성과 창의성 부족으로 인해 문화예술 및 인문학적 소양 교육, 나이가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 청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soinho98@hanmail.net

교육은 요원하기만 하다.

게다가 저출산 현상의 지속적 심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한국의 대학 교육은 그 존립 기반마저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대학의 위기를 자초하고 방관해 온 책임은 뒤로 한 채 ‘글로벌 경쟁 확대에 따른 고등교육 질 관리 및 경쟁력 제고’와 ‘학령인구의 감소에 대비한 양적, 질적 발전 전략 마련의 필요성 대두’ 라는 당위성만을 내세우며 살벌한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 여하튼, 정부의 대학교육 특성화 사업 및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차원에서도 특성화 발전 전략을 통한 실무능력 제고 및 취업 역량 강화, 학제 간 융합 교육은 이미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이명박 정부 이래 폭력적으로 전개되어 온 대학 구조 조정의 칼날은 주로 취업률 등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지방 사립대, 그중에서도 인문 사회 및 예술 계열에 맞추어져 있다. 청주대학교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기반 창의인재 양성사업단”은 이와 같은 제반 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인문과 사회, 예술 계열 간 융합교육을 통해 시대변화에 발맞추어 나아가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되었다. 그리고 2014년에 청주대학교에서는 유일하게 교육부 지정 지방대학특성화사업에 선정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그동안의 사업단 활동 과정 및 성과를 소개, 공유함으로써 인문-사회-예술의 융복합 교육 가능성에 대해 성찰해 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II. 사업 개요

1. 사업단 수행 성과

본 사업단에는 인문대학의 국어국문학과와 문화콘텐츠학과, 예술대학의 시각디자인학과와 만화 애니메이션학과, 그리고 사회과학대학의 신문방송학과가 참여하였다. 다섯 학과가 함께 모이게 된 기본 취지는 인문과 예술, 사회과학 간의 융복합 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려는 것이다. 사업단이 추구하는 인재상은 창의성을 기본적인 소양으로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 적합한 핵심 역량과 새로운 가치 창출 능력을 갖춘 인재, 즉 ‘Creative Contents 인재’로 설정하였다. 근거를 좀 더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창의성(Creativity)의 개념은 교육적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 첫째는 선천적으로 타고난다는 관점으로, 유전적인 능력이나 재능이 있는 대상자를 선별하여 그들에게 보다 맞춤형되고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해야 함을 강조한다. 둘째, 후천적이고 보편적인 특성으로서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개발 가능하다는 관점이다. 이 경우 개인차는 있지만 누구나 자신만의 창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맞춤형 환경 조성 및 기회 제공이 보다 중요한 역할임을 강조한다. 본 사업단은 평균적 수준의 지방 사립대학이라는 현실적 조건을 감안하여 전자보다 후자의 관점을 취하였으며,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중시하여 구체적인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첫째, 기본적으로 본인이 관심을 갖고 일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창의성은 기존 전문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해체하고 다른 것과 조합하는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미래 핵심 역량' 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미래 핵심 역량' 이란 비판적 사고력, 새로운 문제 해결 능력, 응용적 사고력, 융합적 사고력 등을 의미한다. 셋째, 창의성은 단순히 인지적 지식적 측면만을 기반으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창의적 성격 내지 인성과 상호 작용할 때 더욱 발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창의적 인성' 은 실패를 두려워 않는 인내심, 새로움에 대한 관심 및 긍정적 태도, 다양성에 대한 포용 등을 모두 내포한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본 사업단이 추구하고자 하는 'Creative 인재' 란 '전문지식', '미래 핵심 역량' 및 '창의적 인성' 을 기본 소양으로 가지고 있는 인재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현대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서는 융합적 사고에 기반한 새로운 가치 창출 능력이 필수적이며, 이는 다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뉜다. 첫째,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전반적인 가치 사슬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부터 판매까지의 전 과정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는 능력이다. 콘텐츠는 가치 사슬의 어느 한 단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Contents Production(콘텐츠 생산), Contents Aggregation(콘텐츠 수집), Contents Distribution(콘텐츠 유통), Contents Platform(미디어의 가치 및 특성) 등 여러 단계의 가치가 종합되어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및 영상' 등의 콘텐츠 형식을 결합하여 여러 형태로 재창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즉, 단순히 영상 전문가, 음향 전문가, 출판 전문가를 넘어서 모든 콘텐츠의 매체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새로운 방식으로 조합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사업단이 추구하고자 하는 'Contents 인재' 란 '심미적 이해도와 문화 분석력', '비즈니스 환경 이해 및 경영 능력', '창작 능력 및 창작 도구에 대한 기술력', 그리고 '융합적 사고를 통한 가치 창출 능력' 을 핵심 역량으로 지니고 있는 인재를 의미한다.

사업단에서는 학부교육 내실화와 교과목 개편 및 확충, 5개 학과 간 특성화된 기초공동 교육과정 운영, 별도의 융합전공 개설을 통한 심화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순차적 접근으로 상생적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총 5년이라는 사업 기간을 고려하여 다음의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 1단계 : 교육특성화 방향 제시 및 기초 역량 교육
- 2단계 : 교육특성화를 위한 선택적 교과과정 운영
- 3단계 : 디지털콘텐츠 기반 창의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 4단계 : 지역문화 기반 응용 프로젝트 수행
- 5단계 : 지속적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post 발전전략 모색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은 ‘창의력 넘치는 인재 양성’,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콘텐츠 인력의 글로벌·글로벌 경쟁력 강화’ 라는 차원에서 다각도로 모색되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특성화 기반 조성, 기초역량 교육 강화, 융복합 교육과정 설계의 순서로 교육 특성화를 위한 세부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해 왔다.

- 특성화 기반 조성 : 행정과 실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책임연구원과 전임 조교 채용. 5실의 사업단 전용 공간 확보. 학습 의욕 고취와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학금 지원. 총 20개의 학과별 취업동아리 및 프로젝트팀을 선정하여 자치 활동비 지급. 사업단의 이미지 개선과 산학 연계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홈페이지 개설 및 콘텐츠 관련 기관과의 양해각서 체결.
- 기초역량 교육 강화 : 교수학습 역량 강화, 교육의 질 관리 체계 내실화를 위한 교수법 및 학습법 워크숍 실시. Teaching Portfolio 및 Blended Learning 교육매체 개발. 인문학적 기본 소양을 고취하고 전공 연계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독서 구입. 융복합 사고 능력, 현장 연계 실무능력, 취업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콘텐츠 제작 및 전시 지원.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시행.
- 융복합 교육과정 설계 : 특성화 교육모델 시뮬레이션(창의인재 TFT) 운영 결과를 토대로 교육과정 자문 및 분석을 거쳐 청주대학교 최초의 융복합 전공 개설. 이를 위해 새로 개설된 기초소양 과목과 융복합 전공교과의 교재 개발 및 제작.

2. ‘C-School’ 소개

사업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C-School’ 이라는 창의콘텐츠 통합교육 플랫폼의 성공적인 구축에 있었다. ‘C-School’ 이라는 명칭은 청주대학교 ‘크리에이티브(Creative) 콘텐츠 기반 창의인재 양성사업단’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주(Cheongju) 지역 문화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Contents) 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융합 교육 센터라는 점에서 착안하였다. 분과 학문의 개성과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고 통합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교육 모델로 기획되었다. 이를 통해 콘텐츠 전 분야를 포괄하는 통섭 교육, 창작, 협업 등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창의적 융합 인재를 육성하려는 것이다. 전체 교육 과정은 <기초소양교육+선택적 융합 과정+응용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다음과 같은 여러 분야를 두루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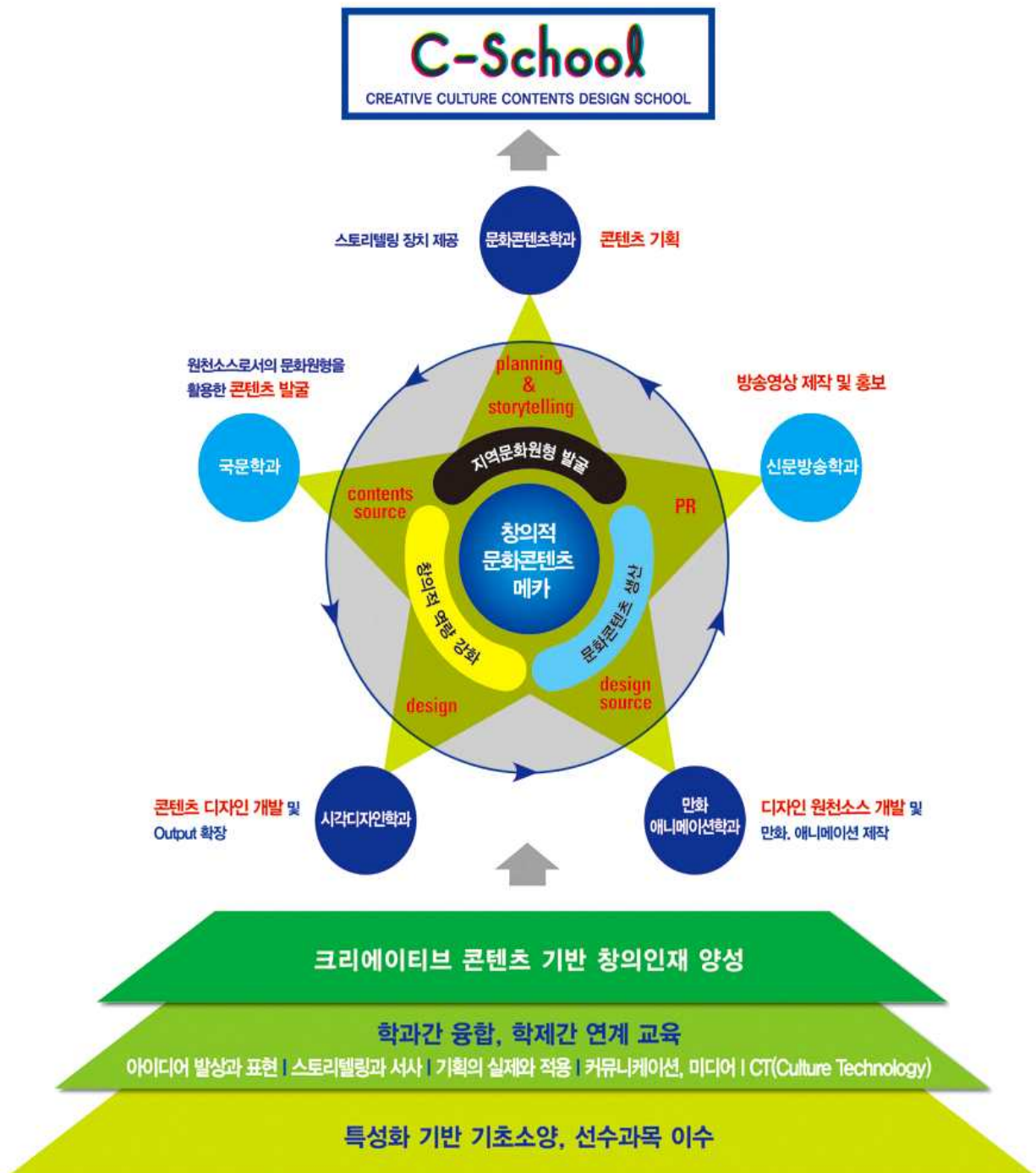
- 초기 아이디어 생성, 발전을 위한 인문학적 기초 소양
- 예술적 창조력에 기반한 독창적인 아이디어 개발
- 분석, 종합 과정을 통한 콘텐츠 기획
- 실무적 학습을 바탕으로 한 디자인 개발
- 작업의 구체화 및 시각화 과정을 통한 콘텐츠 제작
- 영상 매체를 활용한 광고 홍보

사실, 기존 교육 체제에서 개별 학과는 특정 분야의 콘텐츠 관련 인프라와 교육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몰라도, 융합적 콘텐츠 생산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결여되어 있었다. 학생들은 개인적인 선택에 의존하거나 단순히 학점 취득을 목적으로 타 학과의 교과목을 수강해 왔던 것이다. C-School 창의 인재 양성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의 일차적인 특징은 개별 학부, 학과들이 폐쇄적으로 운영해 온 커리큘럼의 상호 융합과 개방이다. 그리고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의 융복합 전공 교과목은 학생들의 실무 현장(취업)과 연계가 가능한 창의력과 기획능력 및 제작능력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점수에만 의존하는 ‘스펙’ 관리에 내몰린 학생들에게 실습형 교육과정을 통하여 자신만의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취업에서도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여 줄 수 있다. 각 수강생은 개인의 목적에 따라 맞춤형의 커리큘럼을 제공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특성화 교육과정 이수를 통하여 실무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응용 능력을 겸비할 수 있을 것이다.

C-School은 다섯 학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교육 특성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미래형 콘텐츠 산업의 핵심 분야를 포괄하는 이상적인 조합으로서 비교 우위를 지닐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충청권 ‘창의적 디지털 콘텐츠 인재 양성의 요람’ 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학과 단위의 전략적인 중점 참여 분야 및 학제 간 융합의 중점 역할 분야는 다음과 같다.

- 국어국문학과 : 문화원형과 지역문화를 활용한 콘텐츠 원천소스 발굴
- 문화콘텐츠학과 : 스토리텔링 장치 제공 및 콘텐츠 기획
- 시각디자인학과 : Place Branding 개발 및 전자책 개발

- 만화애니메이션학과 : 디자인 output 확장 및 만화애니메이션 제작
- 신문방송학과 : 방송영상 제작 및 홍보



<그림 1> 특성화 사업단 도해

III. 교육과정의 구성과 운영

C-School 융복합 교육 실험의 궁극적인 성패는 정규 교육과정의 설립과 실천 여부에 달려 있다. 사업단에서는 5개 참여 학과의 장점을 토대로 기존 학과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새로운 융복합 영역을 접목하면서 선순환 환류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창의콘텐츠 융복합전공 교육 과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별도로 청주대학교 교수학습개발실(CTL)의 지원을 받아 교수법 실천공동체(공동체명: Humanitarts)를 구성하고 “인문 예술의 창의적 융복합 교육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공동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교육과정 설계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백화점식 교과 과정의 비연계성과 불일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예측 가능한 교육 모델을 제시하여 상호 교섭할 수 있도록 기초소양교육, 선택적 융합과정, 정규교육과정 수립의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기초소양교육	선택적 융합과정	정규교육과정
자유선택 2개 과목 개설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창의콘텐츠 융복합전공』 개설

1. 기초 소양 교육을 위한 교양과목 개설

먼저, 특성화 기초 소양 교육을 위해 「크리에이티브콘텐츠이해」, 「크리에이티브콘텐츠산업」을 자유선택과목으로 신규 개설하였다. 참여 학과 1~2학년을 대상으로 선행지식을 학습하고, 융복합 전공에 참여할 수 있는 학문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다섯 학과 교수들이 분담하여 각 전공 분야의 기본적인 내용을 릴레이 강의 형식으로 진행하였는데, 청주대학교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실험적인 강좌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팀티칭은 두 명 이상의 교수가 하나의 강의에 참여하되, 각자 수업을 진행하거나 같이 강의에 참석하는 방식이다. 여러 전공 교수들에 의해 심도 있는 내용 전달이 가능하고, 다양한 관점을 동시에 접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강의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며 우수하지만, 교수자 간의 지속적인 만남과 논의가 생략된 채 단순히 하나의 강의에 대해 영역을 나누어 진행한다면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그리고 다섯 학과의 이질적인 학생들이 모인 대형 강좌로서의 한계도 일부 드러난 바,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강의 세부 주제는 매년 피드백을 거쳐 학생들의 요구 및 눈높이에 맞게 수정 보완하고 있는데, 2016년의 강좌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 「크리에이티브콘텐츠이해」 : 창의적 사고와 콘텐츠, 미래가치로서의 한국문화, 키워드로 본 한국의 문화원형, 신화와 고전소설을 활용한 판타지 전략, 애니메이션 리터러시, 카툰·일러스트레이션 들여다보기, 시각언어의 이해, 디자인과 커뮤니케이션 환경, 디자인 사고와 방법, 디지털미디어 스토리텔링, 방송영상 콘텐츠 기획, 디지털 영상 환경 이해
- 「크리에이티브콘텐츠산업」 : 문화산업의 개념과 중요성, 문화산업의 경영전략과 가치사슬 체계, 지역문화유산과 콘텐츠 산업 1, 지역문화유산과 콘텐츠 산업 2, 만화애니메이션 관련 산업 현황 1, 만화애니메이션 관련 산업 현황 2,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이해, 뉴미디어와 산업, 방송 콘텐츠 산업과 마케팅, 그래픽 디자인 산업, 에디토리얼 디자인 산업, 멀티미디어 디자인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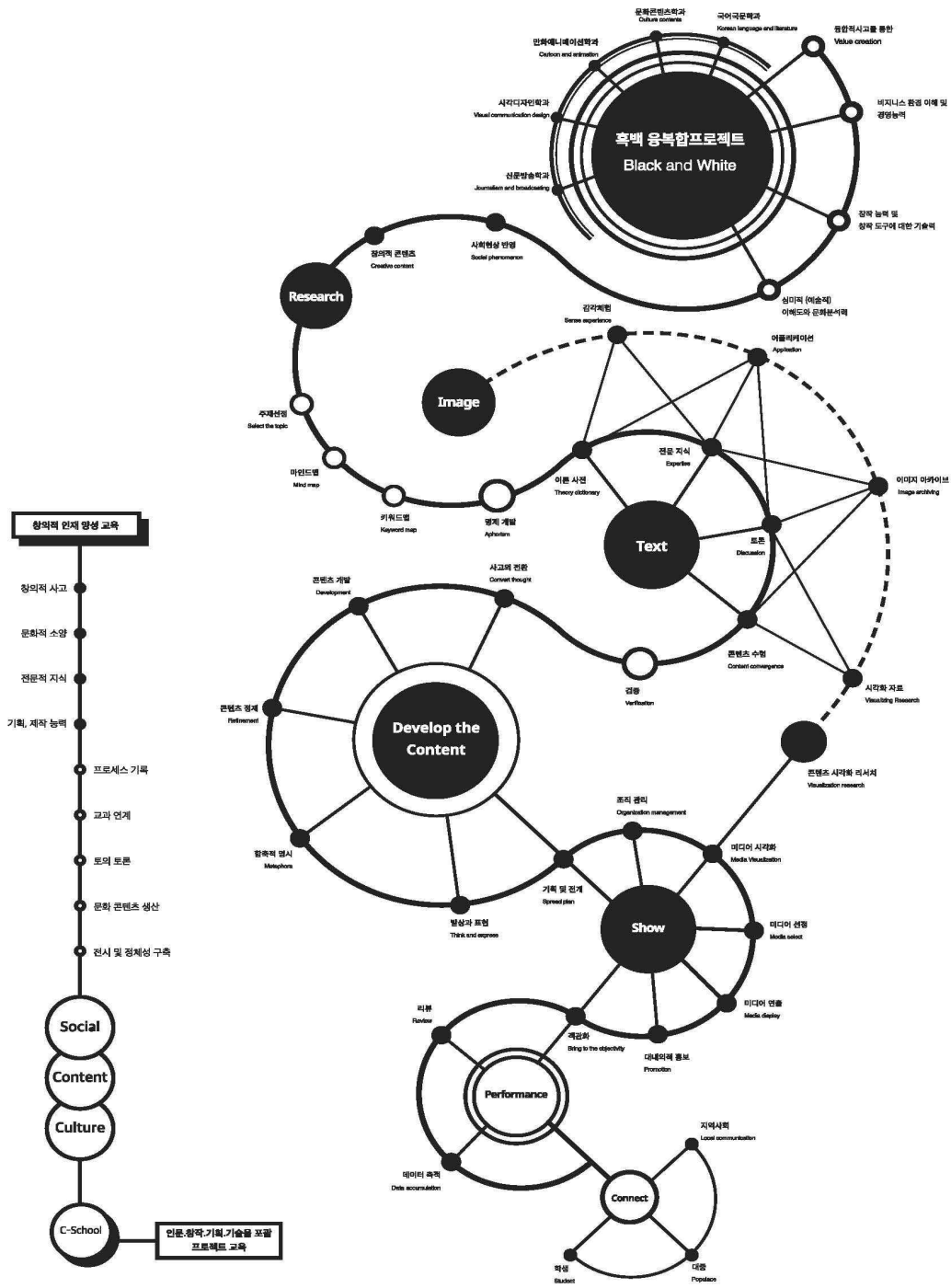
2.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 〈Black & White Project〉

다음으로, 정규 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준비 절차로서 5개 학과별 5명씩 총 25명으로 이루어진 비교과 프로젝트를 운영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능력과 가능성, 열정을 확인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서 〈Black & White Project〉로 명명하였다. ‘흑과 백’이라는 연구 주제를 정하고 협력학습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학습자 팀 성취 분담 모델(STAD: Student Teams-Achievement Divisions)을 응용, 실험해 보았다.

세부 절차는 ‘학생 모집 - 모델 제안 - 팀별 지도 - 비교과 수업 - 결과 발표 및 전시회’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5개 학과 각 1명씩으로 ‘디렉션, 색, 형태, 시선, 환경’의 5개 팀을 구성하였으며, 팀별로 이론과 개념을 정립하고 아웃풋을 기획·제작하였다. 주로 수업이 없는 저녁 시간과 주말, 방학을 최대한 활용하여 약 1년 동안 진행하였다. 교수들 또한 각 팀에 배치되어 멘토 역할을 수행했는데, 학생들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취지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방향 제시 정도로 개입을 최소화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의 긍정적 상호관계를 바탕으로 팀 구성원 개개인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타인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프로젝트의 결과는 기대 이상의 놀라움 그 자체였다. Poster, Motion Graphics, Pamphlet, Banner, App book, Lenticular, Masking tape, Cartoon, Radio, Infographic, Video, Multi-Platform, Postcard, Calendar, Card & Rule Book, Documentary, Drama, Pamphlet, 동화책, 소설, 사전 등등 학생들은 자신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매체와 형식을 동원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생산해 냈다. 이에 별도로 B&W 프로젝트 전시회(전시제목: “흑백을 통

해 세상을 바라보다”)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전시 결과물은 도록으로 출판하여 취업 대비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프로젝트 종료 후에는 만족도를 조사하여 융복합 전공 교과목 설계에 반영하였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다학제적 융합 프로젝트로서, 향후 지역문화를 활용한 창의콘텐츠 융복합 교육과정의 이니셔티브를 확보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림 2> 'B&W Project' 교육모델 설계

3. 『창의콘텐츠 융복합전공』 신설

C-School 교육 모델의 제도화 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시행착오와 논란이 있었다. 서울대학교의 연합전공 제도, 원소속 대학 전공에 자기설계 전공을 가미한 이화여대의 스크랜튼대학 등 타 대학의 사례를 검토해 보았지만 청주대학교의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교육 편제에 있어서도 이화여대와 건국대의 신산업융합대학, 대전대와 목원대의 융복합학부 등의 경우 대학 구조 조정 정책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학과의 정체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 때문에 처음에는 부전공 수준의 느슨한 전공페어링 정도로 그칠까 하고 망설이기도 했다. 그러나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융복합 전공의 필요성과 성공 가능성을 확신하게 되었고, 당초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별도의 복수전공을 공식 학사제도 하에 개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C-School 교육모델 시뮬레이션을 거쳐 창의융복합 교육 과정의 완성 단계로서 『창의콘텐츠 융복합전공』이 마련되었다.

교육과정은 교육체제개발(ISD)의 표준으로 권장되고 있는 ‘ADDIE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Analysis), 설계(Design), 개발(Development), 실행(Implementation), 평가(Evaluation)의 절차에 따라 역량중심 교육과정 개발을 목표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체계적 절차와 환류체계를 결합하여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표 1〉 『창의콘텐츠 융복합전공』 교육체제 개발 과정

단 계		세부내용	실행기간	대상
1. 분석	요구분석	설문조사	2014. 12.	특성화과목 수강생
		FGI	2015. 3.	교수, 전문가
		설문 분석	2015. 4.	참여 학과 학생
		교육 환경 분석	2015. 4.	사업단
		교육위원회 구성	2015. 4.	사업단
	인재상 및 교육목표 설정	인재상 설정	2015. 5.	교육위원회
		교육목표 설정	2015. 5.	교육위원회
	역량도출 및 역량정의	학과별 역량정의	2015. 5.~6.	참여학과
		전문가 워크숍	2015. 7.10.~11.	사업단 참여교수

2.설계	교육체제 기획	교육위원회 워크숍	2015. 8. 7.~8.	교육위원회
3.개발	교과과정 및 교과목 개발	교과과정 개발	2015. 8.~9.	교육위원회
		교안작성 및 교재개발	2015. 9.~12.	8개 과목 (담당교수)
	교육과정 실행 준비	융복합 전공 개설 요청	2015. 8.	사업단장
		학칙 입법 예고	2015. 11. 12.	기획예산팀
		학칙 개정 공표	2015. 12. 17.	학사팀
4.실행	교육과정 운영	융복합 전공 학생모집	2015. 12.~ 2016. 1.	사업단
		강의 개설 및 운영	2016. 1학기~	창의콘텐츠융복합 전공
5.평가	교육성과 평가 및 분석	교육성과 조사	매학기 예정	교육위원회
		교육성과 분석 및 평가	매학기 예정	교육위원회

1) 요구 분석

학생, 교수, 산업체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와 설문을 병행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초기 계획과 요구분석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교육체제의 아이디어를 종합하였다.

첫째, 학생들은 특히 ‘특성화 사업 참여에 대한 자긍심’, ‘특성화 사업에 대한 기대’ 항목에서 높은 호응도를 보였고, 다양한 전공분야에 대한 실무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질 높은 프로그램을 기대하였다. 학습자 의견을 상호 교환하는 토론형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과 더불어, 새로운 교육 실험인 만큼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유하는 수업모델을 선호하였다.

둘째, 교수들은 새로운 교육모델의 시행 초기단계에서 강의식 교육에 매몰된 학생들의 창의적 역량을 표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제시하였다. 창의적 발상은 현재의 제도적 장치로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행정시스템의 유연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의 교육환경으로는 새로운 모델을 설정하기 어렵고, 전공 자체를 교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학문영역이 필요함을 공감하였다.

셋째, 산업체 전문가들은 미래 산업 환경에서는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가 가능한 인재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파편화된 학문 체제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한 융복합 전공이야말로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현재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에 부합하리라는 긍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대학과 산업체가 연계된 교육을 통해 실무역량을 강화시켜 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을 배출할 수 있으며, 외부 현장 전문가 참여 프로그램 및 현장견학 기회 확대가 실질적인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상과 같은 요구 분석 결과, 창의 인재는 전문지식을 토대로 미래 핵심 역량과 창의적 인성을 갖추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이에, 스마트 시대의 통섭적 변화 속에서 학문 간 융복합을 통해 현실 대응력을 마련하기 위해,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디지털콘텐츠 창의 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사업단이 추구하는 융합형 창의인재는 심미적 이해도와 문화 분석력, 비즈니스 환경 이해 및 경영 능력, 창작 능력에 대한 기술력을 배양하여 융합적 사고를 통한 가치 창출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역량 도출 및 정의

역량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역량, 성과, 실제적 적합성을 갖는 지식, 지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 습득 등이 강조된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 사회에서 개인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역량 범주와 핵심 역량을 제시한 OECD의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1997, 2003)를 참고했다.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 등에 의해 제시된 핵심역량과 정의를 사업단의 실정에 맞게 재검토하는 한편,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사업단의 교육 방향에 대한 자문 및 협의를 수행했다. 우선 학과별로 역량을 도출하고 나서, 사업단 교육위원회에서는 융복합전공의 핵심역량을 다음과 같이 체계화하였다.

☞ 다음 페이지에 <표 2> 참조

〈표 2〉 창의융복합 전공역량 분석표

전공핵심 역량	정의	하위전공 역량	정의	행동지표
1. 심미적 이해도와 문화 분석력	예술과 문화 및 인간현상에 대한 심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정보와 자료를 주체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분석하는 능력	1.1 정보처리 및 활용능력	다양한 정보와 자료의 수집, 분석, 평가, 분류, 조작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원하는 정보와 자료들을 취사선택, 분류, 조직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1.2 심미적 감성역량	다원적 가치나 현상에 대한 개방적 태도로 인간현상을 공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	타인의 경험, 사회적 현상, 가치 다양성 등을 이해하고 존중하고자 노력한다.
		1.3 예술적/문화적 감수성	다양한 예술적/문화적 자극들을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 입각하여 주체적으로 구성/수용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예술/문화 콘텐츠들을 접해보고 분석한다.
2. 비즈니스 환경 이해 및 경영 능력	글로벌 환경에 대한 통찰과 사회적 소통을 추구하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제반 상황을 효과적으로 조율하는 능력	2.1 비즈니스 활용 능력	새로운 사고를 통해 산업 환경에서 예상되는 문제 해결 능력	산업 환경의 상황을 정리하고 분석함으로써 당면 과제를 효과적/효율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2.2 국제사회 문화 이해	국제화 사회의 상호 작용에 요구되는 다양한 문화 및 언어를 이해하고, 국제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	세계화와 다문화의 개념 및 흐름에 대해 이해하면서 글로벌한 감각을 유지한다.
		2.3 커뮤니케이션 역량	상호간 이해와 설득, 조정 및 조율을 할 수 있는 능력(리더십 포함)	언어적, 비언어적 방법을 활용하여 타인 및 주변 환경과 소통한다.
3. 창작 능력 및 창작 도구에 대한 기술력	인문학적 소양을 기반으로 한 아이디어 창출과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스토리텔링 기법 및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활용 능력	3.1 의미 전달력	다양한 언어적/비언어적 기술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능력	다양한 언어적/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한다.
		3.2 콘텐츠 편집 및 가공 능력	콘텐츠 중심의 스토리텔링 및 제작 능력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미디어 특성을 고려한 스토리텔링 기법을 습득한다.
		3.3 기술력	콘텐츠 생산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및 도구들을 활용하고, 과잉상 발생하는 문제들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콘텐츠 제작 관련 프로그램 및 도구들에 대한 운용 능력을 향상시킨다.
4. 융합적 사고를 통한 가치 창출 능력	다양한 학문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이해를 토대로 창의적 사고와 통합적인 안목을 갖추고 제반 지식 및 기술을 분석, 추론, 종합하는 능력	4.1 독창성/호기심	새롭고 궁금한 것에 대해 탐구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추고 바라보는 능력	사물과 문제에 대하여 열린 자세를 가지고 접근한다.
		4.2 창의적 문제 발견/해결 능력	기존의 사고와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재구성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기존 관행과 절차보다는 그 이면의 근본원인을 파악하고자 노력한다.
		4.3 개방성과 유연성	전공지식을 기반으로 타 학문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개방적, 포용적 태도	타 분야와 연계된 수업 및 관련 이론, 지식, 기술을 학습한다.
		4.4 통합적 사고력	전공 및 여러 분야의 정보, 지식 및 기술을 이해하고 분석/추론하여 종합하는 능력	개방성과 유연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추론한다.

3) 교과과정 설계 및 교과목 개발

『창의콘텐츠 융복합전공』 교과과정 설계는 아래의 표와 같이 완성되었다. 본인 소속 전공에 개설된 인정과목(6학점) 및 타전공 통섭인정과목(6학점)과 융복합전공과목(24학점)을 포함하여 36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제2전공인 ‘창의콘텐츠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주대학교 학칙 상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학점은 36학점이다. 이 가운데 인정과목 6학점과 통섭과목 6학점을 포함시켰다. 즉 자기 학과의 전공과목과 타 학과의 전공과목을 동시에 인정함으로써, 학문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자연스럽게 타 학문을 선택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다. 더불어 제2전공 선택에 따른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 전공이수학점

소속전공과목		통섭과목	융복합전공과목	합계
기본	인정			
36	6	6	24	72
제1전공	융복합전공			

○ 창의융복합 전공과목 구성

학년	학기	교과목명	학점	학년	학기	교과목명	학점
3	1	창의융합콘텐츠의이해	3	4	1	융합브랜딩전략	3
		창의융합워크숍1	3			융합콘텐츠매체응용	3
	2	융합콘텐츠스토리텔링	3		2	융합마케팅이론	3
		창의융합워크숍2	3			포트폴리오제작	3

창의융복합 전공 교과목은 3학년과 4학년에 걸쳐 총 8과목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이는 모두 사업단에서 추구하는 융복합 교육의 취지에 맞게 새롭게 개발한 교과목이다. 매 학기 이론과 실습 1과목씩을 이수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론 과목인 「창의융합콘텐츠의이해」, 「융합콘텐츠스토리텔링」, 「융합브랜딩전략」, 「융합마케팅이론」은 콘텐츠 발굴에서 제작까지의 전 과정을 융합적 관점에서 새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실습 과목인 「창의융합워크숍1」, 「창의융합워크숍2」, 「융합콘텐츠매체응용」, 「포트폴리오제작」은 비교과로 진행되었던 파일럿 프로그램의 수행 과정을 정규 과목으로 흡수한 것으로서, 연속적인 프로젝트 콘텐츠 실습이 가능하도록 배려하였다. 강의 교재는 전면적으로 새로 집필하였으며, 교과목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창의융복합 교과목 개요

교과목명	교과목 개요
창의융합콘텐츠의이해	정보화 지식기반 사회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 지식, 지혜의 재창출 능력을 함양하고, 미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융합적 사고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배경 이론적인 내용을 선행 학습함으로써 원활한 프로젝트 기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창의융합워크숍1	PBL(프로젝트기반학습)을 통해 문제도출, 주제선정, 해결방안 모색 등을 팀별로 진행하여 학문간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 사고방식을 유도한다.
융합콘텐츠스토리텔링	인문학적 이론을 기반으로 집단 스토리텔링의 전유와 모색을 통해 콘텐츠의 가치 창출과 의미 도출의 방식을 이해한다.
창의융합워크숍2	창의융합워크숍1에서 마련된 기획 내용을 토대로 다전공의 시각으로 융합형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결과물을 생산한다.
융합브랜딩전략	융복합시대에 상품이나 서비스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브랜드화 가능성 발견 및 전략적 방안의 모색을 통해 브랜드 통합 운영에 대한 이해와 실재를 체득한다.
융합콘텐츠매체응용	멀티미디어 시대에 요구되는 다매체의 융합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수용함으로써 매체 활용력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함양한다.
융합마케팅이론	미래 사회를 겨냥한 창의 콘텐츠 관련 상품, 제품, 산업의 시장 가능성을 사례 분석을 통해 탐색하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마케팅 믹스 이론을 학습한다.
포트폴리오제작	창의 콘텐츠 융복합 전공의 특성에 따른 새로운 개념의 포트폴리오 제작을 통해 산업 현장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정리, 제시한다.

또한 사업단 교수들은 별도로 교수법실천공동체(공동체명: 'Localian')를 구성하고 파일럿 프로그램인 'B&W 프로젝트'의 후속 실습 과제로 '안과 밖'이라는 주제를 설정하였다. 역시 학습자 팀 성취 분담 모델을 응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실습 수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대학의 미래는 특성화 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하고, 청주대학교 창의인재양성사업단 융복합 교육의 실천적 대안 모델로서 인문학에 기반한 '로컬리티' 담론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안과 밖' 프로젝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개인별	위험한 아이디어	안과 밖의 이해				개별 리포트	
팀별			안과 밖의 개념 비교	안과 밖의 관계 분석	팀별 방향 수립	콘텐츠 개발	전시 및 포트폴리오

이상과 같이 현재 개설 운영 중인 『창의콘텐츠 융복합전공』은 청주대학교 최초의 융복합 전공으로 사업단 참여 5개 학과 총2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제2전공을 부여할 수 있는 정규 교과 과목이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2015년 12월 학칙을 개정 공표하였다.

IV. 결 론

지금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융합이라는 화두가 빠른 속도로 번져나가고 있다. 그렇지만 융합의 구심점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단지 지적 결과물로 인식함으로써 아직 소수 학자들의 영역에 머물고 있다. 더 큰 문제점은 융합과 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그러나 융합을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인식한다면 대학에서의 융합 교육은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리라 본다. 학생들을 융합의 주체로 받아들이고 학부 교육을 융합적 관점에서 체계화 제도화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구획된 관습적인 전공의 벽을 넘어서야 한다. 그렇지만 학문 분과의 통폐합이라는 인위적 구조조정의 틀에서 접근한다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그릇된 길로 빠지게 될 위험이 있다. 분과 학문의 정체성을 제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상호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판으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청주대학교 크리에이티브 콘텐츠기반 창의인재 양성사업단은 인문학적 기초 소양을 바탕으로 예술과 기술 역량을 겸비한 융합형 창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행히 청주대학교는 이와 같은 융합형 교육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분과 학문의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다. 국어국문학과, 문화콘텐츠학과, 시각디자인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신문방송학과는 인문학적 통찰과 원천소스 발굴,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매체 응용, 홍보에 이르기까지 창의융합콘텐츠의 전 과정을 교육하기 위한 최상의 조합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마치 다섯 손가락의 관계와도 같다. 모든 손가락은 저마다의 고유한 형태와 기능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고립된 상태에서는 물건을 칠 수도, 글씨를 쓸 수도, 무언가를 만들 수도 없다. 다섯 개의 손가락이 함께 어울려야만 비로소 제 스스로의 기능은 물론, 새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청주대학교 특성화사업단의 다섯 학과는 융합 교육을 통해 '더 큰 하나', 만물을 창조하는 '마법의 손'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참고문헌

- 문재원. 2016. “로컬리티 개념을 둘러싼 고민들” , **로컬리티인문학**, 15, 305-314.
- 박일우. 2016. “대학에서 융복합 교육의 실상과 그 해법” , **교양교육연구**, 10(1), 349-378.
- 백중호. 2015. “강의페어링 기반의 융복합 교육과정 구축” ,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pp.35-45.
- 서민규·서덕희·이희용. 2014. “국내 대학의 인문학 및 사회과학 융합교육 실태 연구” , **교육학연구**, 52(2), 81-115.
- 송시형. 2014. “문화콘텐츠와 협동조합운영에 관한 기초연구” , **한국융합인문학**, 2(2), 71-89.
- 육진경. 2016. “학습자 중심 수업이 비판적 사고 전략 향상에 미치는 영향 : 플립드 러닝을 기반으로” , **한국융합인문학**, 4(1), 55-72.
- 이진경. 2010. “지방성 사유의 세 가지 모델 : 지방성의 사유에서 외부성의 벡터에 관하여” , **로컬리티인문학**, 4, 47-82.
- 허영주. 2013. “대학융합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탐색” , **교육종합연구**, 11(1), 45-79.

[토론문]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기반 창의인재 양성과 C-school

양윤모 / 극동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1.

청주대학교의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기반 창의인재 양성사업단>의 운영과 관련된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학령인구의 감소와 대학 정원의 과잉에 대한 구조조정의 압박은 지방대학 및 중소형 대학에 더욱 엄격하고 가혹한 것이 현실입니다. 구조조정의 칼날 끝에서 살아남느냐의 문제는 청주대학교만의 고민은 아닐 것입니다.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문학과 예술 분야의 학과가 구조조정 대상의 우선순위에 올라있습니다. 이들 학과가 우선순위에 오르는 까닭은 대개 취업률의 저조와 그로인한 신입생 충원률 저조 및 경쟁률 하락, 입학생들의 성적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취업률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 속에서 항상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청주대학교의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기반 창의인재 양성사업단>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냉혹한 현실에서 인문학, 예술, 사회과학 학문 분야의 학제적 융합이라는 면에서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학문 분야를 뛰어넘는 학제적 결합은 보통 단순한 결합에 그치지 쉽습니다. 진정한 융합으로 새로운 학문 분야를 창출함으로써 융합의 시너지 효과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고 그 성과는 검증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청주대학교의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기반 창의인재 양성사업단>은 인문대학의 국어국문학과와 문화콘텐츠학과, 예술대학의 시각디자인학과와 만화 애니메이션학과, 사회과학대학의 신문방송학

과가 참여하여 인문, 예술, 사회과학 간의 융복합 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가 필요로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사업단의 궁극적 목표는 청주(Cheongju) 지역문화 기반 Contents, Creative Contents에서 착안하여 ‘C-school’ 이라는 창의콘텐츠 통합교육 플랫폼의 성공적 구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 토론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5개 학과가 참여하고 있는데 각 학과의 신입생 경쟁률 및 취업률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주 지역문화 콘텐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간략히 소개해 주시기 바라며, 이들 콘텐츠가 지역 경제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학생들이 지역 기업에 취업하는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C-school’ 에서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삼고 계신데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창의적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초중고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창의성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는 ‘창의성’의 개념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창조성, 독창성, 상상력, 발명, 창작 등의 개념들이 혼재되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개념의 혼재는 추구하는 목표 및 인재상의 차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C-school’ 이 추구하는 창의성은 어떠한 의미인지 다시 한 번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창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특별한 교육 방법 및 교재 등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4.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Black & White Project>를 5개학과별 5명씩 25명 정원에 각 학과 1명씩 5개 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과별로 균등하게 5명씩 인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경쟁률이 치열하거나 저조한 경우가 있었는지, 다른 문제점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각 팀은 각 학과별 1명씩 구성되었는데 학생들 간의 융합면에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는지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콘텐츠 융복합전공>을 별도의 복수전공 형식으로 개설하였는데 이는 부전공, 이중전공, 복수전공 등 어떠한 개념에 가까운 것인지요? 또한 향후 개별전공 또는 학과로서 실제 학생 모집 단위가 될 수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양한 학문 분야 간 융합 교육의 좋은 사례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毛泽东文艺思想与中国现当代文学创作新气象

李 承 熙*

I. 绪论

《在延安文艺座谈会上的讲话》(下文简称《讲话》)是毛泽东文艺思想的奠基之作,从它问世开始,就对中国二十世纪文学产生了深远的影响。文学史家王瑶认为《讲话》的历史意义在于它是“五四”以来革命文艺运动实践经验的科学总结与集中概括,并开辟了一个新的阶段。¹⁾

一种文学思潮的产生总是需要有理论的先导。《讲话》的诞生,冲击或消解了此前文坛的资产阶级文学思潮(如“新月派”)、小资产阶级文学思潮(如“第三种人”),纠正了“左联”重政治轻艺术、教条主义的错误,建立了无产阶级文学思想的基本原则、基本观点和基本方法,奠定了一元化文艺思潮的基础。从广义上说,《讲话》以后的解放区文学和新中国文学都或多或少地受到毛泽东文艺思想的影响。毛泽东及其代表的主流意识形态掌握着文艺发展的方向,通过颁布文艺方针和政策,发起某些大规模的文艺运动来规定文艺的走向,同时也经常通过对作家个体的言传身教来控制他们的文艺思想;从创作主体的角度讲,身处整个大的政治语境中的作家们也谨小慎微地观察着政治的走向,在政治的风雷激荡中无力地进行创作,为了获得创作的资格和权力,不得不向主流意识形态靠拢。于是,整个文坛呈现出一种大一统的局面,“革命”占据了整个的文艺创作领域。

《讲话》在文艺与革命、文艺与人民、文艺与时代、文艺与生活、继承与革新等关系上建立了中国化了的马克思主义文艺原则、文艺原理、文艺观念和文艺方法,从

* 极东大学 教养系 教授。 greatdolls@hanmail.net

1) 王瑶《从现代文学的发展看〈在延安文艺座谈会上的讲话〉的历史意义》,《毛泽东文艺思想讨论会文集》,人民文学出版社1985年版,第381页。

而为中国现代文艺批评提供了足够选择和运用的理论基础。《讲话》为无产阶级的文学批评确立了统一的标准：政治标准第一，艺术标准第二。《讲话》对文学批评标准的科学概括和阐述，对中国现代文学的文学批评活动具有重要的指导作用，甚至可以说，《讲话》统一了文学批评的准绳。

《讲话》所提出的无产阶级文学思想及其所建立的文学批评标准开辟了中国现代文学的一个新阶段。

II. 毛泽东文艺思想与中国现代小说

毛泽东文艺思想直接关系到小说的论述，特别是关系到新中国小说的论述并不多。然而，新中国小说的发展也深深地受到毛泽东文艺思想的影响。把文学创作（包括小说创作）直接与政治联系起来，强调文学为政治服务、从属于政治，特别重视小说的政治作用。这可从李建彤的长篇小说《刘志丹》的命运中获得一定的证明。《刘志丹》以陕北红军领袖刘志丹的革命事迹作为小说的题材，从某种意义上说，应该是符合意识形态的要求的，也完全属于作家个人的正常创作范围。然而，由于高岗建国初期因妄图篡夺中央领导权力而被定为“反党”，而刘志丹又曾与高岗长期共事，因此毛泽东便感到这篇小说是有意为高岗翻案，认为作者是利用小说进行反党活动。文学在这里便丧失了自己的自主性，完全成为政治的附庸，它的文本层面的任何一点有碍于意识形态的文字都会受到极大地批判。下面从几个方面来阐述毛泽东文艺思想对小说的影响。

1. 对小说题材的影响

中国小说的题材历来有几个主要的方面，即所谓公案、侠义、讲史、脂粉等，或写清官为民伸冤，或写侠义之士除暴安良，或写才子佳人的花前月下情长命蹇，或写帝王将相的仕宦沉浮。晚清之季又兴起社会谴责小说、鸳鸯蝴蝶小说、黑幕小说等。“五四”新文化运动后，小说创作的题材才为之一变，“劳工神圣”的观念也使作家的视角开始伸向社会底层。三十年代左翼文艺运动的发展，使底层工人农民的命运更加被

作家所关注。然而即使如此，占据着文坛的大多数仍是小资产阶级及其知识分子，这或许与大多数作家的小资产阶级知识分子的个人身份有关。《讲话》发表以后，由于揭开了文艺为工农兵服务的文艺创作方向，抗日根据地和解放区的小说创作的题材发生了深刻地改变。《讲话》后文学创作的鲜明特点是：表现“新的人物，新的世界”，赵树理是其中的代表，赵树理也因此被树立为“赵树理方向”，成了新民主主义文艺的一面旗帜。作家们广泛地描写普通的工农兵，并且工农兵的形象也发生了极大变化，由从前的被侮辱和被损害者转身而变为一种创造历史的反压迫反奴役的革命主人公形象。建国后，由于第一次全国艺术工作者代表大会把毛泽东文艺思想确定为文艺工作的指导思想，描写工农兵题材、描写社会主义革命和建设的文学创作基本上占据了整个文坛。1949年，上海《文汇报》发动了关于能不能和应不应该让文艺作品表现小资产阶级生活的讨论。

最后占上风的是，文艺应该主要表现工农兵，小资产阶级虽然可以写，但也只能作配角。而稍后对肖也牧的《我们夫妇之间》的批判更加缩小了文艺创作的题材，有的文章认为作品的态度“客观效果上是我们的阶级敌人对我们的劳动人民的态度”。²⁾因此更多的作家不敢涉足于小资产阶级题材这个雷区了，即使像茅盾、老舍、巴金等新文学中卓有成就的作家也只能或者搁笔，或者尝试着去写工农兵来了。五十年代的首次小说创作高潮便差不多都是描写工农兵的生活和创作的，它们均把工农兵放在文本的中心，在不同的历史背景和斗争场面中去反映特定时代的人际关系和社会风云。“三红一创”³⁾等多部长篇小说所展现的广阔的历史风云和复杂的人物关系中，工人阶级、农民阶级、革命战士同样占据着主导地位。

2. 对小说创作方法的影响

社会主义现实主义、革命的现实主义和革命的浪漫主义相结合的“两结合”的创作方法，事实上长期以来成为新中国小说创作的艺术方法，极大的影响了新中国小说的艺术风格。正如有的学者所言，解放区以至建国后的小说创作中，作家们“不但相当真实和深刻地反映了历史生活的革命性发展和人们心理世界的去旧图新的变化，在典型性格的刻画中十分注意写出特定时代的典型环境，而且几乎篇篇作品都格调高昂、明朗，充满人民翻身作主的喜悦和民族重新站立起的自豪感。这与广大作家先后程度

2) 李定中：《反对玩弄人民的态度，反对新的低级趣味》，《文艺报》，1951年6月20日。

3) 三红一创：《红日》、《红岩》、《红旗谱》、《创业史》。

不同地接受马克思主义世界观及其影响分不开。”⁴⁾ 然而，正如恩格斯所说的，“除了细节的真实外，再现典型环境中的典型形象”是现实主义的基本要求，社会主义现实主义要求文艺反映“真实”，反映社会本质，而“真实”则是意识形态控制下的“真实”，是不同于社会事实的，而所谓的“社会本质”也是处于意识形态控制下的，它们都是为了论述无产阶级及其先锋队组织共产党建立一个现代民族国家的合法性和进步性的。因此，新中国小说在某种程度上存在着粉饰现实、一味理想化以及模式化的不良倾向。这种倾向在文革中进一步发展为“瞒和骗”的文学，最终沦为伪革命的现实主义和伪革命的浪漫主义。这有其相当复杂的原因。

一是与毛泽东的“歌颂与暴露”的文艺思想有关。毛泽东在《讲话》中说：“只有真正革命的文艺家才能正确地解决歌颂和暴露的问题。一切危害人民群众的黑暗势力必须暴露之，一切人民群众的革命斗争必须歌颂之，这就是革命文艺家的基本任务。”⁵⁾可见，他并不反对暴露黑暗，即使在社会主义社会里也存在着真善美与假恶丑的矛盾和斗争，存在各种危害人民的负面现象，文艺作品对其加以暴露是应该的、必须的。毛泽东指出要重视立场，主张从人民的立场去处理这个问题。

这种思想体系之中，“人民”话语具有着“公民”、“百姓”和“平民”话语所难相比的话语优势，“人民”既是民族解放、现代民族国家的建立和社会主义革命的根本性依靠力量，是这些现代性社会运动的承担主体，同时，他们的福祉，也是后者的目的之所在。和“革命”话语一样，“人民”，是一种毋庸置疑的“元话语”(metadiscourse)，任何话语一旦与“人民”话语相矛盾，其历史合法性便将丧失。⁶⁾

可见，“人民”的立场问题有多么的重要。王蒙的《组织部来了个年轻人》发表后，引来了批评界的极大争议，主要围绕两个问题展开：一是作品是否真实地反映了现实生活；二是对其塑造的人物形象如何理解。有的论者就指出北京作为新中国的政治中心，不可能出现像刘世吾这样的官僚。站在“人民”的立场上，从意识形态的视角来考察，这种评论是明显进步的，而作品本身却有着或多或少的问题。但是这种人民立场显然限制了作家的创作视野，似乎写“阴暗面”和“劳动人民的精神奴役的创伤”便意味着是丧失了人民立场，是反“革命”的。其后的对胡风的批判，反右派斗争的扩大

4) 张炯：《在巨人的光环下毛泽东和新中国文学》，中国社会科学出版社，1994年版，第135、134页。

5) 《毛泽东文艺论集》，中央文献出版社，2002年版，第76页。

6) 何言宏：《中国书写当代知识分子写作与现代性问题》，中央编译出版社，2002年版，第95页。

化，大跃进的“五风”⁷⁾等更加助长了只能歌颂光明，不能暴露黑暗的文学创作倾向。

二是与毛泽东的关于社会主义时期的阶级斗争理论有关。按照毛泽东的理解，社会主义时期的阶级斗争不但存在而且还会很激烈；并认为这种斗争会反映到党内，成为党的两条路线的斗争。1964年，他又提出一个概念：党内走资本主义道路的当权派。于是，“两个阶级、两条道路、两条路线的斗争”这种对于社会主义现实的理论阐释，便成为作家理解现实、表现现实的指导观念，文学创作的模式化和概念化也就表现为图解这种观念。浩然描写农村合作化运动的长篇小说《艳阳天》应该是六十年代较好的作品之一，但在艺术构思上仍采用上述模式，写农村两个阶级的两条道路的斗争，因而带有很深的概念化的痕迹。因此，这些作品表面上标榜革命的现实主义和革命的浪漫主义相结合，实际上与社会事实并不吻合，其浪漫主义也只能是一种虚幻的空想，是一种“伪浪漫主义”。

3. 对小说中人物形象的影响

《讲话》以后，工农兵形象大批进入文学创作的表现领域，这是与毛泽东提倡的文艺为工农兵服务的根本任务分不开的。特别是毛泽东还指出要提倡表现工农兵中的先进人物、英雄人物、革命新人的形象。早在1942年，毛泽东在延安就提出了作家要表现“新的人物、新的世界”，其中便强调了一个“新”字。1956年，他在《中国农村的社会主义高潮》一书的按语中写到：

这里又有一个陈学孟。在中国，这类英雄人物何止成千上万，可惜文学家们还没有去找他们，下乡去从事指导合作化工作的人们也是看得多写得少。⁸⁾

正是在毛泽东的倡导下，解放区一直到新中国的建立小说创作一直把“革命新人”、把工农兵英雄人物形象放在艺术描写的中心，无不加以精心地塑造。文学理论界更是不遗余力地展开多次关于形象塑造问题的讨论，如写英雄人物要不要写缺点和如何写缺点，英雄人物应不应该理想化和如何理想化等问题。于是，解放以来的文学作品中的人物形象更加多样化，英雄人物、社会主义新人形象可谓是灿如星斗，组成

7) 五风：“共产”风、浮夸风、强迫命令风、生产瞎指挥风和干部特殊化风。

8) 《毛泽东选集》第5卷，人民出版社，1977年版，第248页。

了长长的人物画廊。如翻身农民形象郭全海、梁生宝，革命军人形象杨子荣、沈建新，先进妇女形象孟祥英、吴淑兰等。社会主义新人和英雄人物形象肯定会有各种自身的缺点，对于他们的艺术刻画也并不是不可以写缺点，但英雄之所以为英雄，其本质却在于他们的先进思想和英雄品格，所以刻画英雄形象时假如不去突出他本质的方面，而是特别关注他的缺点，势必难以写出真实可信的英雄。然而，把人物过于理想化，追求一种至高的真善美，那也容易使人物丧失艺术魅力。尽管马克思主义也并不否认英雄人物的一定的历史作用，但是把英雄人物作为历史的主宰，这种观点自然是片面的。

这种思想发展到文革时，就被“根本任务论”和“三突出”的创作原则进一步激化和强调。“根本任务论”即“要努力塑造工农兵的英雄人物，这是社会主义的任务”；“三突出”创作原则后经姚文元定为“在所有人物中突出正面任务；在正面人物中突出英雄人物；在英雄人物中突出主要英雄人物”。⁹⁾有的论者指出“‘根本任务论’服从灭‘资’兴‘无’的政治需要，偷梁换柱，本末倒置，不仅改变了社会主义文艺的方向，而且践踏了‘双百’方针，否定了英雄形象塑造以外的其他人物形象的塑造，取消了文学的丰富性、多样性，导致了‘文革’时期阴谋文学的一体化”¹⁰⁾，而“三突出”创作原则“完全违背文艺创作的规律，勿视文学和生活中错综复杂的人物关系，将其一概归结为英雄与非英雄、正面人物与反面人物之间的被陪衬与陪衬关系，造成了文学创作的公式化，扼杀了文艺的独创性”¹¹⁾，因此到了“文革”时期文坛上基本上就剩下了一种“高大全”似的人物形象，而这种人物形象也在意识形态的询唤中逐渐丧失了自己的主体性，成为一种简单地图解政治的概念。

4. 对小说文体及语言的影响

毛泽东历来提倡要创作“老百姓所喜闻乐见的中国作风和中国气派”，认为“中国文化应该有自己的形式，这就是民族形式。民族的形式，新民主主义的内容这就是我们今天的新文化”。¹²⁾在《讲话》中又指出“各种干部，部队的战士，工厂的工人，农村的农民，他们识了字，就要看书、看报，不识字的，也要看戏、看画、唱歌、听音乐，他们就是我们文艺作品的接受者。”¹³⁾由于接受对象的原因，各种现代的文学样

9) 谢冕，洪子诚主编：《中国当代文学史资料选》，北京大学出版社，1995年版，第719页。

10) 同上。

11) 同上。

12) 《毛泽东选集》第5卷，人民出版社，1991年 第二版，第707页。

式是不能再进入文坛了，于是在文体上、语言上、创作模式上都有了一种向古代小说学习的风向。

在文体上，章回体、评书体等旧的文体样式大量呈现于文坛。如马烽、西戎的《吕梁英雄传》、刘流的《烈火金刚》是章回体的小说赵树理的《灵泉洞》是评书体的小说，符合了街头巷尾的听说书的老百姓的阅读习惯，易于通过这种扣人心弦的形式来传播革命的意识形态，以达到对老百姓的教育作用。在语言上，更加通俗易懂，更加的口语化，并呈现出地域性的特色。如以赵树理为代表的“山药蛋”派，他们大多是来自三晋地区的土生土长的作家，对生养他们的乡土和乡亲有很深的感情，他们的小说语言都有着很强的山西地区的特色，很容易被当地群众所接受。在创作模式上，显在或潜在地套用了传统小说或地方戏曲的创作模式。如《林海雪原》借鉴了《三国演义》中的“五虎将”模式，《李双双小传》潜在地套用了东北地区的“二人转”模式，这样就更符合下层人民群众的审美习惯，也就更容易为他们所接受。

Ⅲ. 毛泽东文艺思想与中国现代戏剧

1. 毛泽东的戏剧改革思想

在《讲话》发表以前的时间里，统治着戏曲舞台的是“王侯将相”、“才子佳人”，而毛泽东文艺思想的核心却是文艺为政治服务，文艺为工农兵服务，因此他看到新编京剧《逼上梁山》后指出“历史是人民创造的，但在旧戏舞台上（在一切离开人民的旧文学艺术上）人民却成了渣滓，由老爷太太少爷小姐们统治着舞台，这种历史的颠倒，现在由你们再颠倒过来，恢复了历史的面目，从此旧剧开了新生面，所以值得庆贺。”¹⁴⁾这不仅是对一部戏曲的高度评价和赞扬，而是作为一面旗帜、一个方向加以充分肯定的。

新中国建国后，毛泽东仍然重视戏曲改革工作，提倡用历史唯物主义的观点改编旧戏曲，对昆曲《十五贯》改编成功提出表扬；更鼓励用戏曲表现现代生活，特别是以人民群众作为主角，使群众中涌现的英雄人物站立在舞台上，从而使戏曲艺术更好的为政治服务，为人民服务。这些也是《讲话》中所阐明的毛泽东文艺思想在戏曲

13) 《毛泽东文艺论集》，中央文献出版社，2002年版，第51页。

14) 《毛泽东论文艺》（增订本），人民文学出版社，1992年版，第142页。

工作中的具体运用，是解放区戏曲改革工作经验的继承和发展。

2. 毛泽东的戏剧改革方针

新中国戏剧改革的基本格局，主要有传统戏曲、现代话剧、现代歌剧三大种类。因此，新中国戏剧发展所面临的重要任务，就不仅在于如何使移植自西方的现代歌剧和现代话剧更加民族化，更能于广大人民群众相结合，所喜闻乐见；而且还要迫切的实现对传统戏曲的改革，取其精华，弃其糟粕。1951年，毛泽东为戏曲改革写下了如下题词：“百花齐放，推陈出新”。这八个字的意义后来不仅成为戏曲改革领域，而且成为更大的文艺领域的指导方针。在这种思想的指导下，新中国建立之初，许多新的话剧和歌剧就因为内容的崭新而受到广大人民群众欢迎，在改变人民群众的思想情绪和革命觉悟，培养新的审美情趣等方面都起了极大的社会变革的作用。

但是，由于传统戏曲的剧种非常繁多，而且在思想内容上良莠不齐，因此从驳杂的旧戏曲中选择一部分适合社会主义建设的剧目来演出是十分必要的。毛泽东在1957年1月的《在省市自治区党委书记会上的讲话》中指出：“有些现象在一个时期是不可避免的，等它放出来以后就有办法了。比如过去把剧目控制的过死，不准演这样演那样。现在一放，什么《乌盆记》、《天雷报》，什么牛鬼蛇神都跑到戏台上了。这种现象怎么样？我看跑一跑好。许多人没有看过牛鬼蛇神的戏，等看到这些丑恶的现象，才晓得不应当搬上舞台的东西搬上来了。然后，对那些戏加以批判、改造，或者禁止。有人说，有些地方戏不好，连本地人也反对。我看这种戏演一点也可以。究竟它站的住脚站不住脚，还有多少观众，让实践来判断，不忙去禁止。”¹⁵⁾这里，可以看出毛泽东的一种开放的戏曲改革观念，而那种“让实践去判断，不忙去禁止”的观点也显示出他的相当宽宏的思想。

3. 毛泽东文艺思想介入戏剧创作或者戏剧改革

新歌剧《白毛女》是《讲话》以后诞生在解放区文艺中的皎皎者，标志着中国新歌剧走向了一个新的阶段。《白毛女》取材于晋察冀边区流行的一个新传奇“白毛仙

15) 《毛泽东选集》第5卷，人民出版社，1997年版，第349页。

姑”的故事。1945年，延安鲁迅艺术学院的《白毛女》剧组刚开始接触这个题材时，看中的是它的反迷信的意义，意欲从此提炼它的主题思想。《讲话》发表以后，创作者们通过认真学习反复体会毛泽东文艺思想，才意识到这个题材所蕴涵的社会生活的本质，绝不止于反迷信，而且更重要的是体现了劳苦大众在黑暗的旧社会与共产党领导的抗日民主根据地的两种截然不同的命运。统一认识之后，于是确立了“旧社会把人变成鬼，新社会把鬼变成人”的主题。《白毛女》第一次演出之后，毛泽东等有关中央领导人提出了三条意见：第一，这个戏是非常适合时宜的；第二，黄世仁应当枪毙；第三，艺术上是成功的。传达者解释这些意见时说：中国革命的基本问题是农民问题，农民是中国的最大多数，所谓农民问题，主要就是农民反对地主阶级剥削的问题。这个戏反映了这个矛盾。在毛泽东等领导人修改意见的指导下，剧组立刻着手修改剧本，枪毙了恶霸地主黄世仁，因此“加强了农民的反抗性格，深刻地反映了农民和地主阶级不可调和的矛盾的本质，点燃了广大农民向封建地主阶级复仇的火焰，这就集中而强烈地表现了农民在抗日战争时期减租减息的基础上提高起来的彻底的民主革命的要求，因而起到了惊世骇俗、振聋发聩、动员广大农民迅速地投入土地改革的高潮的巨大作用”。¹⁶⁾

建国后十七年，戏曲改革的总体成就还是可观的，主要表现在如下几个方面。一，弘扬民族气节和爱国主义。二，宣扬廉明清正和为民请命。三，歌颂有压迫有反抗的农民英雄。四，赞美军事将帅的英勇机智。五，讴歌忠贞爱情，提倡美好道德伦理。所有这些传统剧目的改编，都是本着“取齐精华，弃其糟粕”的精神，既保存了原戏曲的特点，又有所改造和创新，使得旧戏曲在内容和形式两方面得到更加完美的统一。

IV. 毛泽东文艺思想与中国现代诗歌

毛泽东在强调文艺的娱乐功能的同时，又强调文艺要“团结人民，教育人民”，“帮助人民同心同德地和敌人作斗争”¹⁷⁾的教育功能。因此，他对延安时期的革命诗歌和歌曲给予热情的赞扬，以推动文艺工作者创作出更多的符合革命意识形态要求的诗歌和歌曲，以对解放区军民进行革命的教育和劝化。1939年，延安鲁迅艺术学院的诗

16) 余飘主编：《毛泽东与中国文学艺术》，河南人民出版社，1993年版，第420页。

17) 《毛泽东文艺论集》，中央文献出版社，2002年版，第49页。

歌社团路社邀请毛泽东参加路社的集会并发表讲话。毛泽东在复函时写到：只有一点，无论文艺的任何部门，包括诗歌在内，我觉得都应是适合大众需要的才是好的。现在的东西中，有许多有一件毛病，不反映民众生活，因此也为民众所不懂。适合民众需要这种话是常谈，但此常谈很少能做到，我觉这是现在的缺点。毛泽东在这里明确地指出了解放区文艺界创作的缺点和误区，迫切地需要从行动上落实文艺与群众紧密结合的号召。由此可见，毛泽东文艺思想的核心部分文艺为工农兵服务的观点在这个时候已经初步形成。

《讲话》发表以后，解放区的诗人们自觉地更新自己的诗歌价值观念和审美观念，追求诗歌的民族化、大众化。诗人艾青深入乡村生活，结识了一位农民劳动模范，与其同吃同住，创作了一篇长篇叙事长诗。该诗以简洁、明快、大众能够听得懂的语言写成，这与他以前的诗风有了鲜明的变化。李季的《王贵与李香香》被郭沫若誉为“文艺翻身”的“响亮号角”，被认为是西北高原上出现的“一颗光彩夺目的星星。”它在学习和继承陕北民歌的艺术传统，建立人民大众所喜闻乐见的民族风格上，为诗人们树立了一个典范。全诗以“信天游”的格式写成，成功运用比兴手法，增强了语言的形象性和感染力，生动地表现了劳动人民翻身做主，推动历史前进的巨大力量。正是毛泽东的《讲话》给诗人们指出了一条和劳动人民结合的道路，《王贵与李香香》的出现，使“五四”以来诗歌创作没有得到解决的问题，即民族化、大众化的问题，开始在创作实践中得到解决。于是，在毛泽东文艺思想的指引下，解放区的诗人们在向民歌学习、探索新诗民族化形式方面，取得了突破性成就，在谋求新诗与时代和人民的紧密结合上，作出过不少努力并积累了丰富的经验。

建国后，毛泽东依然对新诗保持了强烈的关注。1957年，《诗刊》创刊，他发表了关于诗歌的一封信，指出“诗刊出版，很好，祝它成长发展。诗应以新诗为主体，旧诗可以写一些，但是不宜在青年中提倡，因为这种体裁束缚思想，又不易学，这些话仅供你们参考”，¹⁸⁾后来又对新诗创作提出过“精练、大体整齐、押韵”¹⁹⁾的要求。1958年，毛泽东亲自倡导在全国范围内大规模收集新民歌，发起新民歌运动。由此，在诗歌界发起了有关新诗发展道路的讨论，毛泽东指出：“中国诗的出路，第一条是民歌，第二条是古典，在这个基础上产生出新诗来。”²⁰⁾1965年，毛泽东写了《给陈毅同志谈诗的一封信》，从改诗谈到写诗，从诗的内容谈到诗的形式，从诗歌创作的艺术规律谈到诗歌的艺术表现方法，从唐宋诗人的成败得失谈到新诗的发展道路。毛

18) 《毛泽东论文艺》(增订本)，人民文学出版社，1992年版，第163页。

19) 臧克家：《毛泽东同志与诗》，《红旗》，1984年第2期。

20) 同上。

泽东对诗歌发表的意见大致可以给我们如下启示：首先，阐明了诗歌的本质特征，把言志抒情作为诗歌的本质特征加以强调。其次，探讨了诗歌的创作原则和表现手法，提出了革命的现实主义和革命的浪漫主义相结合的创作方法。在谈到诗歌的具体表现手法时说，作诗“比、兴两法是不能不用的”，“诗要用形象思维，不能如散文那样直说”。第三，提出了新诗的发展方向，即“诗应以新诗为主体”。

1956年，诗坛气氛比较宽松的，诗歌批评对诗歌创作中的成就和问题都曾有所反思。1957年上半年，在“双百”方针的鼓舞下，诗坛涌现出一批敢于触及时弊、勇于表现生活矛盾的诗歌，如流沙河的《草木篇》、艾青的《养花人的梦》、郭小川的《望星空》、邵燕祥的讽刺诗等，表现了作者对生活的独特思考和大胆的艺术创新精神。《诗刊》、《星星》等一批诗歌刊物的创刊，也可以视为诗坛自新的开端。同样对新诗发展形成巨大影响的是1958年的“新民歌运动”，它产生于大跃进的狂热背景之下，但与毛泽东的文艺思想有很大的关系。1958年3月，毛泽东在成都会议讲话中，指出要注意收集民歌，其中关于新诗发展道路的论述后来在中共八大二次会议上经由周扬的《新民歌开展了诗歌的新道路》的发言而得以系统地论述和推展开来。这场影响广泛的“新民歌运动”是由毛泽东提倡，各级党委政府组织、发动的一场全国性群众运动。“新民歌运动”对于新诗的影响在于它被许多人视为与五四新诗传统相对立的诗歌发展道路，尽管当时就许多人提出相异的见解，而且在报刊上发表了关于新诗发展道路的论争，但是“新民歌”问题实质上是不可置疑、讨论、选择的超出文学范畴的问题。

从1963年开始，诗歌创作出现新的转折，政治抒情诗成为占据诗坛主导地位的潮流。直露地表白诗人的政治信仰和道德情操，甚至以标语口号来代替感情的抒发，成为一时的风尚。诗歌变成“战歌”，诗的主题由赞颂新生活，转向对“继续革命”的感情和行动的宣扬。诗歌的想象方式和象征体系也发生了变化，浅薄的比兴象征和托物言志的方法大量运用，“红日”、“红旗”、“青松”、“井冈山”、“天安门”等被赋予了政治含义而成为使用频率极高的象征符号。在政治抒情诗里，歌颂共产党也与歌颂毛泽东联系在一起。对于这些颂歌，我们要从两方面来看：一方面，它们对于中华民族的向心力，增强中华民族的自豪感和自信心有不可替代的作用；另一方面，也助长了后来的个人崇拜，有一定的消极作用。毛泽东对解放区以来新诗的影响还表现在他本人直接进入诗歌叙述中，成为当代诗歌歌颂的主要对象。毛泽东作为新中国的缔造者，作为引导中国革命走向胜利的人民领袖，在相当长的时间内受到人民和诗人的歌颂是很自然的事情。诗人们的确真诚地怀着对他的深切景仰和热爱，情不自禁地加以歌颂。最早出现的对毛泽东的赞美，主要是把他比喻为“太阳”、“大救星”

的诗歌意象。如流传甚广的《东方红》。

在这首诗歌里，歌颂毛泽东、歌颂共产党和歌颂人民是三位一体的，赞美毛泽东也就同时意味着赞美共产党，赞美人民自身的胜利和美好的革命理想。这种感情是广大人民群众在长期的革命斗争中体验出来的。这样的诗歌还有《草原上升起不落的太阳》，《山丹丹花开红艳艳》，《共产党的恩情唱不完》等等。那时，政治抒情诗是诗歌中的主要品种，也是最受欢迎、最易引起强烈共鸣的品种。

V. 毛泽东文艺思想与中国现代散文和报告文学

毛泽东在《讲话》中提出了描写新的人物、新的世界的号召，解放区的革命作家、艺术家自觉地响应这种号召，纷纷下乡、下厂、下部队，切身体验火热的群众斗争生活，写出了歌颂工农兵，歌颂新的人物、新的世界的创作冲动，因而选择一种能够快捷的表现现实生活的文学体裁是十分必要的。而报告文学因其真实性、新闻性、战斗性和文学性的有机结合的特点，则满足了作家的创作需要，成了作家的理想选择之一。由此，一大批栩栩如生地报道新人物、新思想、新事件的报告文学作品如雨后春笋般应运而生，这种现象受到毛泽东的热切关注和热烈称赞。1944年6月30日《解放日报》刊登了丁玲、欧阳山描写陕甘宁边区合作社工作模范人物的报告文学《田保霖》和《活在新社会里》，毛泽东看到后非常高兴，连夜给两位作家写信，祝贺他们树立了新的写作作风，也就是运用毛泽东文艺思想来指导自己的文学创作、描写新的人物新的世界的写作作风。由于毛泽东的倡导，报告文学写作在解放区蔚然成风，充分发挥了它的快捷、真实的特点。

新中国成立后十七年的散文创作大致可以分为两个时期。1949-1956年为散文创作的第一个时期，通讯报告得到了空前地发展，成为创作的主要实绩之一。通讯报告的主题基本上表现为两个方面。一个方面反映韩国战争(1950年)及其生活。很多作家响应党和政府的号召奔赴韩国战场，实地进行考察和采访，写下了大量感人的战地通讯，比如魏巍的《依依惜别的深情》、《谁是最可爱的人》，杨朔的《鸭绿江南北》、巴金的《生活在英雄们中间》等等，此外还有大量的战地通讯报告及其结集。这些结集、选集和报刊上发表的通讯，比较真实生动地反映了中国军抗击美国军的战斗场面和英勇事迹，讴歌了无数像黄继光、邱少云式的战斗英雄的悲壮业绩。这时通

讯报告的另一方面是迅速及时地反映社会主义建设，比较著名的篇章如柳青的《王家斌》、秦兆阳的《王永淮》，描绘农村经过社会主义变革之后的气象和初期合作化运动中干部群众的精神面貌，在读者中引起强烈反响。通讯报告的成果，标志着这一时期散文创作的繁荣。然而，从题材和内容来看，这些通讯报告大多是歌颂性的，揭示社会矛盾和干预生活的作品极为鲜见，这主要与毛泽东关于“歌颂与暴露”的文艺思想相关，毛泽东在《讲话》中指出：“对人民群众，对人民的劳动和斗争，对人民的军队，人民的政党，我们当然应该赞扬”，²¹⁾社会主义文艺也需要暴露，但在暴露什么和怎样暴露的问题上，是有着明显的阶级性的，“对于革命的艺术家，暴露的对象，只能是侵略者、剥削者、压迫者及其在人民中所遗留的恶劣影响，而不是人民大众”，²²⁾“一切危害人民群众的黑暗势力必须暴露之，一切人民群众的革命斗争必须歌颂之，这就是革命艺术家的基本任务”。²³⁾在艺术方面，它们往往以事件淹没人物及其思想，多写人物的英勇壮举而缺少细致的内心揭示，因此存在着严重的概念化倾向，缺乏动人的艺术力量。

1957年至1966年，是十七年散文的第二个时期，是当代散文史上创作比较活跃的一个时期。以杨朔、秦牧为代表的一批散文家，以他们的创作实践打破了沉闷的空气，积极推动散文创作走向发展和繁荣。抒情散文在这一个时期显得比较活跃，如杨朔的《海市》、《东风第一枝》，秦牧的《花城》、《潮汐和船》，刘白羽的《红玛瑙集》。但这些散文在一种貌似平静的、虚假的“繁荣”里引吭高歌，或多或少地反映了在现实痛苦面前艺术家们应有的社会洞察力的弱化或丢弃。这个时期报告文学已经发展成为散文中较为活跃的一支劲旅，较为著名的有《中国青年报》记者集体采写的《为了六十一个阶级兄弟》、刘白羽的《万炮震金门》，雷加的《三门峡截留记》。它们的特点在于时代感、新闻性以及歌颂性题材与共产主义思想教育的结合，从中可以看出报告文学直接为政治、政策服务的端倪，这与毛泽东文艺思想中的文艺为人民服务的观点是相联系的。建国后十七年的散文创作是在曲折中发展的，因为受到越来越严重的“左”倾思想和路线的影响，有着许多值得总结的教训。首先，诸如要求文艺必须直接配合政治运动与宣传任务，“一个阶级一个典型”等等，长期持续地强化着散文作家的创作意识，限制了题材和体裁的多样化，大大束缚了散文家们的创作自由，形成了大一统的歌颂性的思想表现模式。其次，一般散文作家习惯于豪言壮语式的歌颂，说假话大话，政治说教气十足，使散文背离了抒写真情实感的美学原则。

21) 《毛泽东文艺论集》，中央文献出版社，2002年版，第50页。

22) 《毛泽东文艺论集》，中央文献出版社，2002年版，第76页。

23) 同上。

最后，我们还必须提到作为中国文学重要组成部分的少数民族文学。《讲话》发表后，不少少数民族作家或在延安和抗日根据地学习毛泽东的《讲话》，或在后方阅读过《讲话》的内容。他们自觉地将文艺与神圣的抗日使命联系起来，为最广大的人民大众服务，以强烈的中华民族整体意识，鲜明的个性特征，创作了多种形式的有利于“团结人民，教育人民，打击敌人，消灭敌人”的文艺作品。小说中，蒙古族作家萧乾的《血肉筑成的滇缅路》堪称代表。这篇作品以二千五百万民工舍生忘死铺筑战略通道滇缅路为内容，歌颂中国工人的献身精神和中华民族强烈的内聚力。这些筑路民工，不分民族和男女老幼，一同奋战。“老到七八十，小到六、七岁，没牙的老媳，花裤脚的闺女”都自愿出工。他们每日战斗在陡坡悬崖，或出没于原始森林，冒着死亡、伤残的危险，战胜恶劣气候，生活困苦，以赤诚的爱国心，筑成了九百七十三公里汽车路，架起三百七十三座桥梁，完成一百四十万立方公尺石砌工程中近两千万立方公尺的土方，显示了中华民族协力同心、气壮山河的英雄气概。与此相类似的，还有满族作家端木戴良的小说《江南风景》，舒群的小说《奴隶与主人》、《难中》，朝鲜族作家金昌杰的小说《逃亡》、《狗崽子》等。这类作品的题材虽然多数采自汉族地区而非作家本民族、本地区的生活，但却是他们自觉加入抗战大合唱队列，不分民族和地域，抒写祖国惨遭蹂躏，同胞备受残害的揪心切肤之痛，发出反侵略战争的明证。

诗歌和散文方面，维吾尔族诗人黎·穆塔里甫一往情深地唱道：“中国！中国！你就是我的故乡！”号召人们把对祖国的爱置于家庭、恋人之上，为祖国母亲燃起“爱情的火焰”，“拨响解放的琴弦”，为祖国战斗，“去迎接太阳的东升”（《中国》、《致人民》、《爱与恨》）壮族诗人黄青也表示愿为祖国献出“青春”，“用血肉保卫我们的祖国，用枪炮声振奋我们的民族”，焕发出“生命的闪电”（《来到祖国南方》）。

土家族作家萧离写于抗战最艰苦的1942年的散文《当敌人来时乌镇战役中含血带泪的穿插》淋漓尽致地控诉了日本帝国主义灭绝人性的暴行。法西斯强盗们不仅奸淫烧掠，而且以杀戮为游戏，连小孩、老人亦不放过。将刺刀扎进小孩背心，小脸朝天，称之为“仰泳”；给老太太全身捆上芦草，从头浇下煤油，点燃火，让老太太在烈火裹缠中惨嚎哭跳，直至烧死；称之为“跳草裙舞”。……然而，作家指出惨绝人寰的血腥暴行并未使不愿做奴隶的中国人屈服。军民同心，拼死苦战，终于使乌镇上空又飘扬起中国的国旗。文章以严酷的事实，证明在帝国主义侵略者面前，屈膝退让、苟且求生只有死路，团结抗战，坚持斗争才是国家民族唯一的出路。

报告文学方面，彝族作家李乔的报告文学《饥寒槛褛的一群》以云南征兵中骇人听闻的舞弊和壮丁的非人遭遇，抨击国民党政府消极抗日的行径和兵役制的腐败。征

兵任务下达后，层层官吏趁机中饱私囊。应该入伍的凭金钱免征，不符征兵条件的穷百姓，却被抓去充数。押送途中，不少壮丁因冻饿、疾病倒毙路旁。到部队时，三百多名壮丁活着的仅仅有七十三人，而且病弱褴褛；征兵队长却带着赚来的壮丁费到昆明过花天酒地的生活。

VI. 结论

毛泽东论述文艺问题，既讲了文艺和一般意识形态所面临的共同使命，又讲了文艺的独特功能和艺术生产的特殊规律。他深入分析了生活美和艺术美的关系，论述了如何通过深入生活获得创作源泉。毛泽东文艺思想，是马克思主义与中国革命文艺实践相结合的产物，是革命文艺运动发展经验的科学总结，是马克思主义文艺观系统、完整的表述，是文艺规律、特别是革命文艺发展规律的科学概括。正因为具有高度的科学性，所以长期以来，它一直是中国革命文艺、社会主义文艺的发展指针。

文艺为什么人服务的问题，马克思主义创始人已经在原则上指明了。特别是列宁，他明确指出，文艺应当为“千千万万劳动人民服务”。毛泽东的一个历史性贡献，就是新的历史条件下指出，为实现文艺为最广大的人民群众服务，就要实行文艺工作者和人民群众相结合。毛泽东对中国新文艺运动的又一个重要贡献，是帮助它克服某种欧化的偏颇，使它真正走上民族化的轨道。在毛泽东看来，中国的新文化应当是“民族、科学、大众的”。他说：“中国文化应有自己的形式，这就是民族形式。”

美国学者弗朗西斯·苏曾指出，“我们坚信，不充分了解其哲学基础，就不可能真正理解毛泽东及其思想。因为正是毛泽东的哲学基础才是他的一切理论著作和革命活动的起点。”²⁴⁾《讲话》说：“马克思主义的一个基本观点，就是存在决定意识，就是阶级斗争和民族斗争的客观现实决定我们的思想感情。”“作为观念形态的文艺作品，都是一定的社会生活在人类头脑中的反映的产物，革命的文艺，这是人民生活在革命作家头脑中反映的产物。”毛泽东关于文艺这一经典性的命题，构成了毛泽东文艺思想完整科学体系中最基本的文学观念。生活是文艺创作的唯一源泉，这并没有否定文学创作者的主体性。只有当审美创造主体对社会生活进行审美观照、主观能动的心灵开始创造活动因而生活便成为审美客体对象时，文艺与生活才产生了实质性的关系。这些都是毛泽东文艺思想的核心价值。但是我们也必须看到，由于《讲话》的广

24) 美) 弗朗西斯·苏：《毛泽东的辩证法理论》，中共中央党校科研办公室发行，1985年出版，第7页。

泛影响，有一些作家“丧失”了自己创作的主体性，而创作主体性的丧失就必然导致作品中人物主体性的丧失，于是，人物服务主题，事件演绎主题，主题证明政治理论的千真万确，九九归一跟我走，自觉的文学在这里就成为听话的文学。这里提出一个严峻问题就是，在作家面对的生活真实和信奉的理论发生冲突的时候，作家究竟选择什么。这一点，在上个世纪80年代“重写文学史”运动中得到了很好的反省，但是反省似乎也有点“矫枉过正”：仿佛文艺家一旦沾上了革命的边，必定葬送了自己的艺术生命。

当然，还应当承认，毛泽东的文艺论著和言论并非句句是真理。它的个别提法，譬如文艺从属于政治，今天已不再沿用了。更应当承认，毛泽东晚年犯了错误，他高瞻远瞩地看到了和平演变和资本主义复辟的危险性，但对文艺局面估计得过于严重，给“四人帮”摧残革命文艺打开了方便之门。

但人民是公正的，“人心自有公道在”。《讲话》影响下的革命文艺虽然经受了种种磨难和责难，但谁也无法打掉它在群众中的强大吸引力。

■ 参考文献

《毛泽东文艺论集》，中央文献出版社，2002年版

《毛泽东选集》第5卷，人民出版社，1977年版

《毛泽东论文艺》（增订本），人民文学出版社，1992年版

王瑶：《从现代文学的发展看〈在延安文艺座谈会上的讲话〉的历史意义》，《毛泽东文艺思想讨论会文集》，人民文学出版社1985年版。

李定中：《反对玩弄人民的态度，反对新的低级趣味》，《文艺报》，1951年6月20日。

张炯：《在巨人的光环下毛泽东和新中国文学》，中国社会科学出版社，1994年版，第135、134页。

何言宏：《中国书写当代知识分子写作与现代性问题》，中央编译出版社，2002年版

谢冕，洪子诚主编：《中国当代文学史资料选》，北京大学出版社，1995年版

余飘主编：《毛泽东与中国文学艺术》，河南人民出版社，1993年

臧克家：《毛泽东同志与诗》，《红旗》，1984年第2期。

美) 弗朗西斯·苏：《毛泽东的辩证法理论》，中共中央党校科研办公室发行，1985年出版, 第7页。

[토론문]

마오쩌둥 문예사상과 중국 근현대문학 창작의 신조류

송재두 / 중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 서론의 구성과 《讲话》에의 치중

- 서론은 《讲话》의 영향력에 대해서 주로 언급하고 있어서 이 논문의 전체 구성이 《讲话》의 중국문단에서의 영향력에 관한 논문일 거라는 추측을 독자들로 하여금 갖게 만들.
- 제목이나 논문의 전체구성과는 상이할 수 있음.
- 마오쩌둥의 문예사상을 연안에서의 《讲话》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확인과 검증이 필요함.

○ 소설 창작방법에 대한 영향

- 소설 창작의 어떠한 방법에 영향을 미쳤는지 모호함.
- 신중국 이후의 소설에 연구자가 제시하는 혁명적 낭만주의가 스며있었는지 대표적인 문학작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오히려 혁명적 낭만주의는 작가의 자유로운 창작정신을 억압하는 마오의 문예방침에 눌려있었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음.

○ 마오쩌둥 문예사상과 신중국의 근대문예의 관점

- 신중국 근대문예의 흐름에 마오의 문예사상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은 공론화되어 있지만, 마오의 문예사상을 《讲话》로 국한하고 《讲话》를 통하여 신중국의 근대문예를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중국 공산당은 사상개조운동(思想改造運動)과 정풍운동(整風運動)을 지렛대삼아 중국의 문예활동을 제한하고 인민들의 사상에 영향을 미치는 문예활동을 정형화하고자 하였다는 점이 간과된

것으로 보여 아쉬운 점이 존재함.

○ 마오쩌둥의 《讲话》에 나타난 문제점 비판

- 마오의 문예사상은 문예유산에 대한 역사주의적 관점의 경시(輕視)하고 있음. 특히 근대 문예 내지 프롤레타리아문예의 계승이론의 결여되었음.
- 문예의 상대적 독자성과 창의성에 대하여 무관심하였음.
- 예술에 대한 기술주의적인 해석으로 예술의 발전을 침해.
- 농민중심주의에 흐르기 쉬운 '노농병대중' 이라는 용어를 사용.

제2부 워크숍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WORKSHOP)**

한국융합인문학회 2017 춘계학술대회(2017.04.22)
동아시아 근현대 인문학과 예술의 융합적 고찰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정보센터 안내 및 앱(App) 소개



한국융합인문학회 2017 춘계학술대회(2017.04.22)
동아시아 근현대 인문학과 예술의 융합적 고찰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2.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안내 및 관련자료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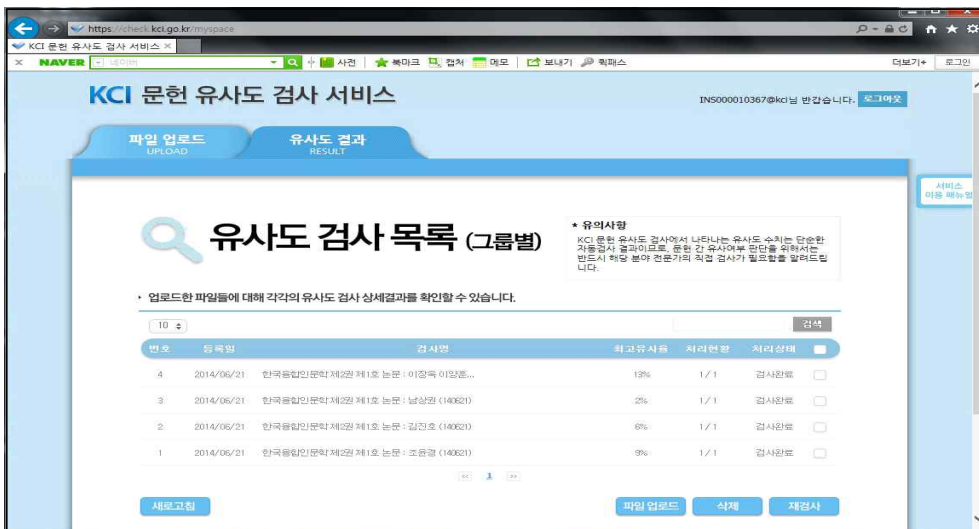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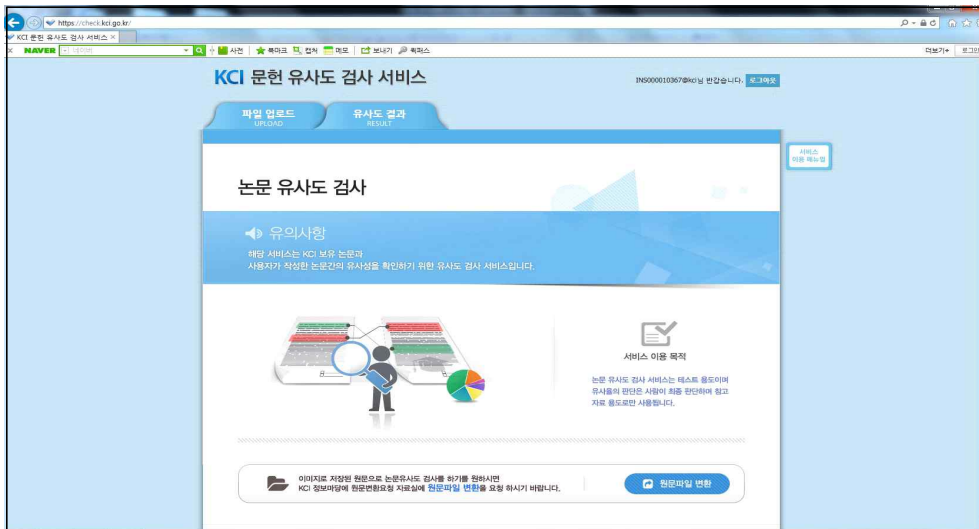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관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목 차 / Contents

제1장 연구부정행위의 개요	
1. 연구윤리의 중요성	10
2. 연구활동의 스펙트럼	14
3. 연구부정행위의 개념 및 발생원인	19
제2장 연구부정행위 검증의 주요 개념	
1. 적용대상 및 검증주체	30
2. 검증시효 및 검증원칙	35
3. 검증기간 및 검증기구	38
4. 제보자와 피조사자	42
제3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1. 제보접수	49
2. 예비조사	52
3. 본조사	61
4. 판정	75
5. 이의신청	76
6. 검증 시 유의사항	78
제4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후속조치	
1. 조사결과에 보고	84
2. 조사기록의 보관 및 정보의 공개	86
3. 징계 등의 후속조치	90

한국융합인문학회 2017 춘계학술대회(2017.04.22)
동아시아 근현대 인문학과 예술의 융합적 고찰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3.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1)



한국융합인문학회 2017 춘계학술대회(2017.04.22)
 동아시아 근현대 인문학과 예술의 융합적 고찰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3.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2)

